

琉球大学学術リポジトリ

戦 戦 戦

メタデータ	言語: 出版者: 琉球大学法文学部 公開日: 2008-11-27 キーワード (Ja): 沖縄戦, 平和の礎・平和祈念資料館, 朝鮮半島出身者, 朝鮮人従軍慰安婦, 戦争トラウマ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保坂, 廣志, Hosaka, Hiroshi, 保坂, 広志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hdl.handle.net/20.500.12000/8292

オキナワ戦の記憶と記録

保坂 廣志
Hiroshi Hosaka

The Memory and Record about The Battle of Okinawa

本論は、2004年3月27日から同28日にかけて韓国の済州島にて開催された済州4・3記念国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運動：平和・人権・国際連携」（主催 済州4・3研究所）に際して求められたフルレポートを、ハングル語に翻訳したものを掲載したものである。

沖縄戦の重厚な記憶は、900冊余にもものぼる各種書籍として発刊されている。さらに、平和の礎（1995年建立）や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2000年改築開館）にても戦争追体験や平和学習が可能となっている。一方、沖縄戦には残された課題や問題点も多く見られる。特に、沖縄戦下での朝鮮半島出身者の実相解明が、ほとんど手づかずのままである。そこで本論では、ともすれば「非在」の歴史として排除されがちな沖縄戦の諸問題に言及しつつ、それをいかにして復元していくかについて、主として沖縄戦の記憶と記録を掘りどころに記述した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沖縄戦 平和の礎・平和祈念資料館 朝鮮半島出身者
朝鮮人従軍慰安婦 戦争トラウマ

처음

제 2차 세계대전하의 1945년 3월부터 동년 6월에 걸쳐 치러진 오키나와戰은, 일본 국내에서는 주민을 포함한 일미 최후의 지상전이 되었고, 좁은 섬 곳곳에서 일미 양군은, 인간과 병기로 일대 결전을 전개했다. 결국 일미 총 24만여명이 희생되고,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이 상실되었다.

특히 오키나와戰에서는, 일본군의 철저한 저항전 사상에 뒤따르는 형태로 주민 다수가 전장으로 보내져, 군인을 웃도는 사상자를 냈지만, 미군측의 손실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대였다. 「미군의 오키나와 제압은 비참하고 처참한 것」(1)이었으며, 「전쟁사상 가장 작렬한 피비린내 나는 전투」(2)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키나와戰에 참전한 한 미 해병대원은, 「전쟁에서는 적도 아군도 이미 문명인이 아니다. 원시시대와 같이 야만하고 잔혹해진다」(3)고 말하고, 인간이 인간임을 상실한 것이 오키나와戰이라고 슬회하고 있다. 이 처참하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 인간성을 상실」한 오키나와戰은, 현재 남아있는 많은 전흔(戰痕)과 마음의 상처를 아로새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키나와戰을 언급하면서, 현재에 이어지는 전쟁의 상흔(傷痕)을 기록하고, 그 위에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려 한 것이다.

제 1 장 오키나와戰의 실상

1 일본의 절대국방권

근대 일본의 출발에 즈음하여 일본이 처음 도입한 정책은, 「탈아입구(脱亜入欧)」와 「부국강병」 정책이었다. 그 때까지의

봉건국가=막번체제(幕藩体制)가 다져온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관계를 폐지하고, 구미열강에 비해 국가형성을 꾀하는 것을 뜻하며, 또 부국강병이란, 문자 그대로 산업육성으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대국을 꾀한다는 「팽창주의」 정책을 국시로 한 것이다. 이에 동반하여, 근대국가 일본의 출발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유지로 되었고, 이에 따른 국내체제의 확립과 내외정책의 확립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이윽고 아시아의 국가들을 식민지 지배하(조선, 대만)에 놓고, 1931년에는 중국으로의 군사적 지배를 획책하여, 결국에는 1941년 12월 8일, 구미열강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루어진다.

그럼, 전쟁 발발에서부터 전승가도에 오른 일본은, 아시아대륙에서 태평양 지역에 걸쳐 광대한 점령지역을 획득했다. 그러나, 1943년에 들어서자 군사적 열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동년 9월, 일본 정부와 대본영(大本營, 전시 또는 사변시에 설치되는 천황직속의 총괄조직)은 국가의 유지상 양보할 수 없는 전시 국방 경계선을 정하게 되었다. 이는 「절대 국방권(絶対国防圈)」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북쪽으로는 치시마열도(千島列島)에서 남쪽은 서부 뉴우기니아, 거기에 수단, 미얀마를 포괄하는 광대한 제국영토였다.

이러한 절대국방권이 활발하게 표방되던 1944년 2월, 일본 해군 전진 근거지로 하는 트룩(Truk) 섬이, 미 제58기동부대(미츄어소장) 함재기의 공격을 받아, 해군기지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그 존재가치는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일본의 진주만」 「태평양의 지브랄타르(Gibraltar)」라 불리던 트룩 섬의 군사적 무력화는, 절대 국방권에 구멍이 뚫려, 대본영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본영 육·해 군부는, 바로 합동연구를 개시하여, 「마리아나(Mariana)제도, 캐롤라인(Caroline)제도방면의 방위강화와, 본토, 남서제도, 대만, 필리핀 방면」의 방위작전 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남서제도를라 불리는 류우큐우(琉球)열도가 새로운 전시국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2 제32군(오키나와수비군)의 창설

1944년 3월 22일,大本營은 절대 국방권 상실의 위기에 즈음하여, 이를 새로운 전술로써 반격하고자 新작전방침 「10호 작전준비요강」을 책정하고, 제32군(오키나와수비군, 와타나베마사오〔渡辺正夫〕중장)을 신설했다. 당시, 남서제도의 지상병력은 전무나 다름없었고, 구식 해군포와 육군포가 오키나와 본도의 니카구스쿠(中城)灣과 이리오모테지마(西表島)의 후나우키(舟浮)에 설비되어 있는 정도였다.

大本營은, 대미 군사작전은 지금까지의 대함선(大艦船) 거포주의(巨砲主義)에서 항공결전이 된다고 전략사상을 전환하고, 후방 항공기지를 류우큐우(琉球)열도 일원에 건설하기로 했다. 동년 5월부터 오키나와 본도 6, 도쿠노시마(徳之島) 2, 이에지마(伊江島) 3, 미야코지마(宮古島) 3, 이시가키지마(石垣島) 1, 합계 15개의 비행장 완성을 목표로, 시민, 부녀자, 생도 약 5만 명을 연일 동원하여 완성을 서둘렀다. 그건 마치 오키나와가 육상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또는 「항공요새기지」화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비행장 건설과 해상 특공부대의 지원을 위해 조선에서 다수의 군부(軍夫, 일설에는 1만 명에서 1만 2천명)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연행되고, 거기에 또 일본군 병사의 성적 노예로서 1천 명 규모의 종군 위안부가 연행되어 왔다.

정부는, 오키나와県内 전도 요새화와 병행하여, 오키나와 현민의 본토로의 분산·대만으로의 분산을 서두르기로 했다. 그것은, 1944년 6월, 미군의 사이판 상륙작전(제 58기동부대 스포루안스 해군대장)과 그 공략으로, 일본은 남대양 제도에서의 육·해군의 방위거점을 잃고, 그 때까지의 「공략공세」라는 전쟁관이 뿌리서부터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사이판의

함락으로, 오키나와는 물론 일본 본토도 미군기의 공격범위 내에 들어가고, 일미의 오키나와 지상전투가 현실로 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44년 7월에 각의(閣議) 결정에 의해, 현내 거주 노인, 아동, 부녀자 10만 명을 도외(島外)로 피난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비전투원뿐이고, 약 50만 명의 일반 현민은, 오키나와에 갇혀, 결국 다수의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3 오키나와戰=일미 최후의 지상전

오키나와戰은, 1945년 3월 26일 미군의 게라마(慶良間)제도 공략부터 개시되어, 4월 1일 오키나와 본토 상륙, 그리고 6월 23일(미군 기록은 22일) 제 32군 牛島滿 사령관의 자결로 일본군의 조직적 전투는 거의 종결되었다.

오키나와戰은, 82일간에 이르는 도서전(島嶼戰)이고, 주민 다수를 포함한 일대 지상전이었다.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아이스버그작전이라 명명하고, 영국 항모 함대도 작전에 협력하는 등 연합군으로서 전투를 행했다. 상륙 미군은, 7개 사단을 포함한 제 10군(바크너 중위)이 주력으로, 병력은 18만 여, 이 이외에도 상륙 지원군과 후방 원호함대, 게다가 보급부대를 합하면 총 54만 명이였다.

한편, 미·영 공략군을 맞이한 제 32군(牛島滿중위)은, 3개 사단 3여단, 군 포병대, 군 선박단 등으로 편성되어, 병력은 11만 명이였다. 그러나, 오키나와 본도 이외의 지역에도 병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을 맞이하여 공격한 실제 병력은, 7만 7천명 정도라 일컬어지고 있다.

오키나와戰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가 각자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우수한 오키나와戰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는 시마즈(嶋津与志)의 설을 들기로 한다.

— 오키나와戰의 자리매김

15년 전쟁의 최후 단계로써의 일·미 양군의 최후의 작전

二 오키나와戰의 특징

- ①장기에 걸친 격렬한 국내 지상전
- ②현지 자급 총동원 작전
- ③군민 혼재의 전장(戰場) 행동
- ④정규군인을 웃도는 주민 희생
- ⑤미군에 의한 군사점령의 장기화

3개월여나 되는 전투에서, 일본은 패배를 이룬 셈이지만, 처음부터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투였다. 오히려 오키나와戰은, 애초부터 본토 결전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도 얘기되었고, 미군을 하루라도 오래 오키나와에 잡아두는 작전이 취해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시마즈(嶋津与志)는, 이를 「오키나와도 역시 황토(皇上)의 방파제에 지나지 않았다」(5)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戰에서는, 국토가 전장이 된 것과 일본군의 오키나와 현민에 대한 차별감 등에서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이나 간첩 간주 살인 등이 다발했다. 이 이외에도 「집단자결」(集團死라고도 한다)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사망한 것도 특색이다.

오키나와戰으로부터 60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전쟁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전사자수나 사상자의 실태 등, 거기다 조선출신자의 생사 등,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 많은 것도 오키나와戰의 실정이다. 다음에 올리는 것은, 오키나와戰 종결의 땅인 마부니가오카(摩文仁丘)에 건립되어, 오키나와戰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는 「평화의 초석」에 조각된 나라별, 출신지별 숫자다.

전사자	오키나와 주민	14만 9천 명
	일본군	7만 5천 명
	미군	1만 4천 명

오키나와戰의 기억과 기록

영국	82명
대만	28명
북한	82명
한국	263명(2002년 6월 현재)

이것으로 보면, 오키나와戰 그 자체와 오키나와 근해, 도서지구에서의 전·병사 등을 포함시키면, 24만 명 이상의 인원이 전몰한 것이 된다.

제 2 장 오키나와현 내의 평화(전쟁)기념 자료관 등의 현재

1 평화의 초석

「평화의 초석」은, 1995년 6월 23일, 오키나와戰 종결부터 50년을 기념하여 오키나와현 남부의 이토만시(糸満市) 마부니가오카(摩文仁丘)에 건립된 오키나와戰 순전몰자 각명비(刻銘碑)이다. 이 각명비는, 나중에 기술할 「오키나와현 평화기념 자료관」과 도선(導線)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조이며, 오키나와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碑)이다.

평화의 초석의 특징은, 오키나와戰에서 희생된 적군·아군, 전투원과 비전투원, 전쟁지도자와 가해자·피해자의 구별 없이, 국적을 불문하고 현재 알 수 있는 희생자의 이름을 최대한 새긴 점에 있다.

평화의 초석 건립에 즈음하여, 기본 이념이 정립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축으로 되어 있다.

①전몰자의 추도와 평화기념(平和祈念)

지난 오키나와戰에서 돌아가신 국내외 20여만 모든 사람들에게 추도의 뜻을 표하고, 영령을 위로함과 동시에, 오늘, 평화를 향수할 수 있는 행복과 평화의 고귀함을 재인식하고, 세계의 항구 평화를 기념한다.

②전쟁체험의 교훈과 계승

오키나와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국내 유일하게 주인을 끌어들이

지상전의 장이 되어, 많은 고귀한 인명과 돌도 없는 문화유산을 잃었다. 이러한 비참한 전쟁체험을 풍화시키는 일 없이, 그 교훈을 후세에 올바르게 계승해 간다.

③안식과 배움의 장

전몰자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만의 건설에 그치지 않고, 조형물을 배치하여 예술성을 부여하여, 찾아오는 이에게 평화의 존귀함을 느끼게 하고, 안식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장으로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하는 평화학습의 장으로써의 형성을 지향한다.

평화의 초석은, 「평화의 물결 영원하라」라는 메시지로 상징화되어 있는 것처럼, 해안부분의 단애절벽 정상 부근에 건립되어, 부서지는 파도를 조망하면서, 그 파도가 평화의 잔잔한 물결이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담겨진 조형물이기도 하다.

건립 당초에는, 전쟁가해자를 섬기는 것은 새로운 「청국화(靖國化)」는 아닌가 라는 등, 적·아군의 구별도 없이 새기는 것은 세계의 각명비(刻銘碑)의 풍조에 반하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반발이나 이론(異論)은 나오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그것은, 전쟁이라는 냉엄한 사실 앞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사망자는 모두 희생자이고, 사람의 생명에 경중은 없다는 것, 혹은 전몰자 다수의 각명비를 봄으로써, 얼마나 이 전쟁이 잔혹의 극한에 이르렀는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게다가, 각명판(刻銘版) 중에는, 이름이 없는 「누구의 차남」이라든가 「누구의 장녀」라는 등의 각명도 있다. 이건, 생명이 확실히는 있었지만, 일가 전몰했거나, 관계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전쟁의 소용돌이 중에 출생하여, 이름은 지어졌지만 신고할 장소도 없고, 모자 모두 사망한 어린이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어린이의 생명에 마음을 달래고, 어느 어린이나 분명 미소와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부조리에 새삼 슬픔을 더하게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가령 자료관이, 사실의 제시라 하면, 평화의 초석은, 전쟁을 미워하는 상상력과 사망자에게 그리움을 달래는 위로와 슬픔의 감정을 낳게 하는 장소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문제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 출신자의 각명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일설에는, 한반도에서 오키나와에 강제징용이나 종군위안부로서 착출된 자는,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에 이른다고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태는 거의 해명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징용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후생성이 일부 창씨개명 이후의 일본명 원적부(原籍簿)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된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전혀라 해도 될 정도로, 생전의 기록에 관한 것은 남아있지 않다. 그만큼 가혹하고 무참하고 잔혹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상흔을 남기지 않는 전쟁은, 거기에 확실히 기억을 지우려 하는 「기억의 암살자」가 있고, 그들은 기록이 없는 것을 구실로, 과거의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의 어둠 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초석의 각명 방침은, 오키나와戰의 전몰자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이름을 각인해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그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 오키나와현 평화기념 자료관

오키나와현(新) 평화기념 자료관은, 1975년에 건립된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 신축하고, 평화의 초석과 일체화한 형태로 건립되어, 2000년 4월에 개관을 본 자료관이다.

동 자료관의 기본이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오키나와戰에서는, 군인보다도 일반 주민의 전사자가 훨씬 웃돌아, 그 수는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포탄에 날려가고, 어떤 사람은 굶주림과 말라리아로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선박조난의 희생이 되고, 또, 패배하여 도주하는 자국군대의 희생이 되는 자도 있었다. 우리 오키나와 현민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상황 속에서, 전쟁의 부조리와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다. (중략)

오키나와戰으로부터 전후에 이르는 이 역사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현민 특유의 평화관인 『오키나와의 마음』을 결실지었다. 오키나와의 마음이란, 인간의 존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전쟁에 연관되는 일절의 행위를 부정하고, 인간성의 발로(發露)인 평화를 추구하고, 문화를 그지없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중략)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현민은, 『모든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새로이 하고, 이 오키나와 땅에서 인류 보편의 바람인 평화를 널리 내외로 발신하고, 세계의 항구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평화의 섬 오키나와를 건설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7)

본 기념 자료관의 특색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그건 「전쟁 체험한 오키나와 주민의 눈높이」에서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전장에서 쓰러지고, 상처입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의 잔혹함을, 있는 그대로, 게다가 의연한 전쟁부정 사상을 가지고 본 기념 자료관은 건설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때문에 기념관 전시에 즈음해서는, ①전쟁이 지나는 비인간성·잔인성을 분명히 하고, 전쟁에 대한 노여움과 증오를 호소함과 동시에, 평화의 존귀함과 생명의 존엄을 호소한다. ②전쟁의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일으키는 힘과 그 본질을 분석하여 인식시킨다. ③평화를 창조하는 힘과 그 전망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간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참가·체험형 전시도 시도되고 있다.

제 3 장 평화기념 자료관 · 평화의 초석의 문제점

1 평화기념 자료관 사건(1999년)

1999년 8월, 기념 자료관의 자료전시를 둘러싸고 생각지도 못한 「역사날조사건」이 떠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県문화 국제국(国際局)이, 동 자료관 감수 위원회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당초의 전시계획을 대폭 변경하려 한 것이 발각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황군병사(보초병이라 부름)가 총으로 동굴 안의 피난민을 내쫓으려고 하는 복원모형(조형물)이, 비무장 병사의 「설득」 모형으로 바뀐 것이, 県민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県民은, 県측이 오키나와戰의 실상과 황군병사의 섬뜩한 실태를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고 불신을 품은 것이다.

왜 県측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県民 여론의 반발과 사실(史實)에 거슬러서까지 전시내용을 바꾸려고 했는가. 県내의 매스컴에 의하면, 99년 3월, 사무 관계자로부터 이나미네(稲嶺惠一) 오키나와 県 지사에게 신 평화 기념 자료관의 설명회를 했을 때, 지사는 「나라가 한 일과, 국책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하고 말하고, 그 후, 전시물의 재고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사의 말을 받아, 전시방침이 「국책을 비판하지 않는다」 「일본군의 잔학성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고 고쳐졌다고도 한다.

매스컴에서 지적된 변경예정 부분을 요약하여 말하면, 「조선인 중군 위안부」와 「방언사용은 간첩으로 간주한다」는 전시는 중지하고, 구 일본군의 県민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삭제하고, 「씩씩이 동원」이나 「집단사(集團死)」 「학살」이란 문언(文言)은 「県민의 동원」과 「희생된 사람」 「희생자」로 어감을 완화시키고, 황군병사에 의한 「방공호에서 내쫓은 일」 「주민 희생자수」는 삭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県이 증지나 삭제, 바뀌 쓰기를 예정한 부분은, 오키나와戰의 지주를 이루는 것이고, 전쟁체험자와 연구가로부터 전쟁의 실상으로써 입증되어 온 것뿐이었다. 이것은, 県 수뇌에 의한 오키나와戰의 명백한 개찬(改竄, 자기 쪽에 유리하게 바뀌 씀)이고, 국책이라는 이름 하에 전멸한 사자(死者)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훗날 분명해진 것은, 県 지사의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99년 10월 7일, 県紙인 「오키나와 타임스」는, 県 3역이 新평화 자료관의 전시내용에 대해 의견을 기술한(7월 23일) 메모를 폭로했다. 그 중에서, 이나미네(稲嶺惠一) 県 지사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너무 반일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발언의 취지는, 「한국의 전쟁자료관을 보았을 때, 철저한 반일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또 하나는, 잔학한 장면에서는 눈높이를 어른의 높이에 맞추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나미네(稲嶺惠一)지사의 발언은, 한국의 「독립기념관」의 전시를 가리킨 발언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지사는, 이 한국의 전시에 불쾌감과 거부감을 나타낸 셈이다.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필자도, 1993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동관을 시찰한 적이 있지만, 일본의 구 식민지 시대 기억의 실상으로써,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특히, 일한 합병 하에서의 일본군·관헌이 행한 수많은 만행을 나타내는 밀랍인형으로 된 조형물을 시각에 접했을 때, 나는 말을 잃고, 전율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잔인·비도(非道)한 제국 일본의 만행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행한 그리도 섬뜩한 행위에 대항하고, 민족의 자랑을 폭력으로 뺏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기를 보여주려는 확고한 의지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오키나와県 지사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한국 민중이 일본을 향한 눈길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역사의 실상을 폭로하고, 뼈아픈 한국 식민지화의 사실을 고통을 안고 폭로하려는 「역사를 보는 안목」에

「반일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본디 평화기념 자료관이란, 인권상실의 원흉을 기록하고, 인간의 존엄을 새겨 넣는 전언판(伝言板)이어야 한다. 그곳은 전쟁의 전시이고, 불행하게도 슬픈 장소이다. 전쟁을 직시함으로써, 사람은 누구나가 얼굴과 이름이 있고, 인간으로서 생을 다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전쟁의 전시로, 개개인의 죽음과 마주하고, 두 번 다시 국책으로 사람이 살해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평화 기념 자료관 문제는, 마침내 縣民의 거센 분노가 되어 끓어오르고, 결국 縣은 모든 전시를 계획 단계 그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어떤 의미에서, 縣民이 보여준 사실을 감추지 말라는 주장과 縣 당국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정신적 외상(外傷)을 남게하지 않기 위해서도 구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자면 同시기 전후보장문제의 하나로써, 오키나와島 아에야마(八重山)제도에서 전시 하에 발생한 「전쟁 말라리아」에 대한 보장과, 그에 따른 「말라리아 기념관」 문제가 있었다. 말라리아 기념관은, 정식으로는 「아에야마(八重山) 평화 기념관」(1999년 5월 개관)이라 불려지고 있지만, 縣에서는 감수 위원회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전시물의 설명문(캡션)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아에야마(八重山) 평화 기념관은, 전시 하에 일본군이 말라리아 발병지에 「강제퇴거」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약 3600명의 주민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정부가 위로사업으로써 3억엔을 내놓고, 각종 위로사업을 전개한 것 중 하나이다.

同기념관의 자료전시에 즈음하여, 전문가들은 사전에 사진 설명문을 縣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縣에서는 일절 사전예고도 없이, 원안을 변경해 버렸다. 원안 수정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오키나와戰」에 관계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예의 강제노동에 관련된 문언이 배제되는 등, 악질교묘한 縣당국의 작태가 보이고 있다. 縣은, 소위

「민중사관」이라는 역사시점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묘한 「황국사관」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엿보인다. 이래서는 평화행정이 아니라, 전쟁긍정 행정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야에야마(八重山) 평화 기념관」도 또한, 앞의 오키나와県 평화 기념 자료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県民의 거센 항의를 받고, 県은 결국에는 모든 전시설명문을 거의 계획 단계로 되돌림으로써, 재개관했다.

2 평화 기념 자료관의 현재 문제점

평화 기념 자료관 문제점의 하나는, 본 자료관의 중심을 이루는 주민증언으로 구성된 「지옥의 전장」 코너에 하나같이 설명문이 없다는 것이다. 同코너는, 오키나와에서는 가마(ガマ)라 칭하는 동굴, 전시 하에는 자연동굴로써 존재했던 중에 전개된 전쟁모습을 상징적으로 조형물로 전시한 것이다. 전시는,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하나는, 「피난민·일본병」, 두 번째는 「야전병원·청산가리」, 세 번째는 「작전회의·잠행부대」, 그리고 네 번째는 「투항전단·간첩간주」로 되어 있다. 이들 4개의 전시물은, 오키나와戰의 중후한 기억이 되어,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 코너에 県民의 전쟁체험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피난민·일본병」 전시물에서는, 일본병사의 손에 꽤 큰 총(38총이라 부름)이 쥐어져 있고, 그 일본병사는 흡사 주위를 찌려보듯이 가마(ガマ, 동굴)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일본병사는 피난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진다. 이 동작에 대해, 오키나와戰 연구의 제 1인자이고, 감수 위원을 맡은 이시하라(石原昌家) 오키나와 국제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면의 일본병사의 얼굴의 방향과 실제 완성되었을 때의 일본병사의 조형물의 얼굴의 방향이 다르지만)그것은 적군에게 가마 안의 일본군의

위치·진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일본병사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밖의 움직임을 주의하면서,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울부짖는 유아 쪽에는 총검을 들리고, 주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가마 안의 모습 일순간의 움직임을 잡고 있다고 이해했다」.(8)

분명히 이시하라(石原)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병사의 동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전시물은 「지옥의 전장」이라 되어 있듯이, 주민의 시선에서 그려진 전쟁기억이고, 당연히 주민 동작이나 반응을 중심에 이야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총을 지닌 일본병사를 제외하고, 거기에는 유아 2명과 4명의 주민이 조형되어 있다. 어머니의 손에 눈을 돌리면, 그 손은 자기 자식의 입과 코를 막고, 그 얼굴과 눈은 슬픔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 또 바로 가까이 있는 누이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면에 앉은 노인은 손을 내밀어,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제지하려고 하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노인 한 사람은, 손을 앞으로 내밀어, 눈을 아래로 향하듯 하고 있다. 더욱 강렬하게 와 닿는 것은, 한 노파가 오키나와에서 말하는 「우-토, 우-토」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동작이다. 이것은, 시간적 경과에서 보면, 이미 일본군은 「우는 애를 죽이라」는 명령을 낸 후의 동작을 얘기하고 있고, 때마침 어린이가 어머니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나 주민증언이 더욱 농후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죽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족 전원이 가마를 나가느냐」이다. 우는 애를 죽이라 명령하는 일본군 병사,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게 함으로써 다른 가족이 살아난다는 극한 상황, 이 증언조차 얼어버림직한 「지옥의 전장」의 침묵의 사실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념 자료관의 가마 전시물에는, 일절 설명은 없다. 섬뜩한 전쟁을, 상상력으로 입회하여, 전쟁이 뭔가를 알리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의 전시물의 해석만으로도, 크게 평가가 나뉘어지는 것이다.

역시, 전쟁이나 그것에 바탕을 둔 조형물 그 자체를 평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설명문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이, 평화 기념 자료관 내에 놓여진 「전쟁 실물전시」에 관계된 문제이다. 2001년 1월, 자료관 앞 정원에서, 평화의 초석의 도선 부분에 갑자기 구 일본군의 거대한 산소식 어뢰 4발과 토치카(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총 화기 따위를 갖춘 방어진지)포와 전차의 캐터필러(탱크 따위의 바퀴를 잇는 체인) 등이 야외에 전시되었다. 이것은, 콘크리트 단상과 철 기둥과 사슬로 둘러싼 상설 전시물로서 지금도 남아 있다. 뿔에서는, 이전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이전 전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역시 여기에는 평화에 기울이는 철학과 사상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 기념 자료관은, 오키나와戰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주요이념이고, 병기로서 전쟁 전시하는 의도는 본디 없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잔존 실물 병기는, 관내에서는 사물로서 진열대에 가둬져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사색의 회랑(回廊)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평화의 초석의 도선부분에 단상을 마련하여, 병기를 전시하는 것은 자료관의 정신을 無로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3 평화의 초석과 한반도 출신자의 각명문제

여자 정신대와 중군위안부의 명목으로, 조선 여성들이 오키나와에 강제 연행되어 왔지만, 당시의 군기밀이나 주민과의 교류 등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중군위안부」를 둘러싼 실상은 어둠에 묻힌 채 있다. 최근 조사연구에서는, 일본 국내에도 「위안소」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오키나와에는 일본군의 해외 기지와 다를 바 없는 위안소가 설치되어, 오키나와는 「준외지(準外地)」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선에서 온 남자의 강제연행은, 1944년 8월, 군부로서 하역부대에 동원된

것이 처음이고, 그와 전후해서 조선인 위안부가 나하(那覇)에 상륙해 왔다고 얘기되고 있다.(9) 전후(戰後)의 조사에 의하면, 종군위안소는 県内 전역에 배치되어, 58개소, 위안부 약 600명 정도의 소재가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일종의 빙산의 일각이고, 그 실태와 실수(實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10)

게다가 오키나와戰에서는, 육군 「특설 수상 근무대」라 불리는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왔다. 그들은, 계급은 없고, 무기도 없이 제 32군 지배하의 각 부대에 배속되었었다. 그 수는, 1만이라고도 2만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키나와戰에 조선인 군부로서 연행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한국에 귀국한 김원영(金元榮)은, 전후가 되어 당시 기록한 일기를 바탕으로 『조선인 군부의 오키나와 일기』를 출판했는데, 그 책의 해설 중에서 번역자가 해설을 시도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오키나와에는 1만 수천 명의 조선인이 있고, 징병 또는 지원에 의한 군인은, 2천에서 3천 명, 무기를 갖지 않고, 군의 수송, 운반 등에 종사한 군속, 소위 군부가 9천 명, 여자 정신대 및 간호원이 약 1천 명 있었다고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도,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후생성의 기록에서는, 오키나와戰에서의 조선인 희생자는 7천 명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1만 명이라고도 2만 명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다」.(11)

더불어 오키나와에 연행된 위안부가 어떠한 경우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다음과 토착 여성에 의한 전쟁증언이 있다. 증언에 의하면, 증언자는 당시 미야코(宮古)고등여학교 생도로, 미야코지마(宮古島)에 건설된 비행장에 징용되어, 주말에 자택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자생도의 자택이 있는 취락에는, 「피·야(ピ-屋)」라 불리는 위안소가 세워져 있었다.

증언 「거기에 몇 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어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하고 노래부르기도 하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리고 걷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안됐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12)

현재, 오키나와戰에서 사망한 조선 출신자의 각명은, 한국·북한을 합해 400명을 밀도는 수치에 불과하다. 많은 조선 출신자는, 현재 행방불명이고, 신원조차 판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복상(服喪)추도는 끝나지는 않았다. 평화의 초석의 각명 방침은, 오키나와戰에서 사망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각명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도 일본정부가, 혹은 오키나와군이 전쟁에 대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는 게 필요하다.

맺음

1 전쟁을 둘러싼 아시아와의 연계 필요성

오키나와縣에서 전쟁의 실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과의 연구상의 연계가 필요해지게 된다. 그건, 오키나와戰 자체가, 15년 전쟁의 귀결로써 치러져, 아시아에서 구 일본군과 주민에 관계된 문제는 공동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또, 이러한 공동연구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쟁연구에 대한 지적 공헌으로 될 것이고, 글로벌 시점에 입각한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오키나와縣 평화기념 자료관의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평화 박물관 등의 순회 전시의 수용-관련기관과의 협력과 다른 평화 박물관·자료관의 기획전의 수용 등을 기획하고, 실시해 간다」고 기록되어 있다.(12) 이것은, 자료관 건설단계서부터, 오키나와측은, 적극적으로 내외의 평화 자료관 등과 연계를 도모하고, 평화의 실현을 꾀하여 나가자고 하는 의지와 기대를 담은 것임에 틀림없다.

2 구조적 폭력의 해명과 연구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키나와縣의 경우, 전쟁 중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대한 미군기지의 존재가 있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할 경우, 이 미군기지문제를 피해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구조적 폭력」이라 불리는 제 문제에 대해,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시선을 국내에 돌리면 일본에 있어서의 남북문제, 중심국대 주변국이란 구조적 폭력도 존재하고,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 평화를 아로새기는 모든 기념관·박물관·미술관은 지속적으로 호소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들 제 문제를 든다면, 미군기지와 인권, 개발과 자연보호, 자립적인 경제·사회발전에 관계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여기서부터, 오키나와에서, 전쟁에 관한 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현대사와도 민감하게 관련되어,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미군기지와 인권 등이 연속적인 것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3 전쟁의 외상(外傷)과 비재(非在)의 기억의 복원

아시아에서의 구 일본군에 의한 전쟁피해와 종군 위안부에 볼 수 있는 마음의 상처 등, 전쟁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오키나와戰이 적의 섬멸전(殲滅戰)이며, 필요하다면 스스로도 병기화(兵器化)하여 적의 죽음을 추구하는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사체애호증)가 지배하는 「지옥의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戰에 참가한 미군병사 중에서, 「전투신경증」에 걸린 사람은 26000명이라 얘기되며, 이 중 수백 명이 전후 시민생활에 복귀 못했다고 얘기되고 있다.(14)

한편, 오키나와戰에서 생존한 사람들도, 1960년대 중반에 본토의 2배 이상의 비율로 정신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다. 오키나와戰 체험자의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지만, 그래도 현재 역시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고, 전쟁영화를 볼 수 없고, 주기적으로 우울증 상태에 빠지는 사람

등이 다수에 이르고 있다.

전쟁은, 반드시 정신의 어딘가에 상처를 내며,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떠오르고, 전쟁체험자에게 커다란 마음의 고통이 되어 덮쳐오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소한 말이나 탄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픔을 지닌 사람에 대한 컴패션(compassion, 배려 동정 공감)을 갖는다면, 필시 상대의 아픔이 통하여, 새로이 전쟁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거나, 얘기되지 않았던 과거가 드러나, 전쟁의 실상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県の 경우, 야에야마(八重山)지역에서 전시 하에 발생한 「전쟁 말라리아」 문제를 말하는데, 사람은 약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일」로 된다는 섬뜩한 전쟁에 있어, 어떤 체험은, 체험자의 마음 속에 깊이 가뒀 버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 오키나와戰 증언자에게 많다. 그렇지만, 전쟁 체험자의 무거운 입을 열게 하여,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야기해 가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가 있다면, 전쟁의 어두운 부분은 지금 이상으로 표출되어 갈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4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 구축

아시아의 평화라 해도, 그건 현실적으로는 원대한 테마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6자 회담이나 한국의 「햇빛정책」 등,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해 확실한 첫걸음이 내디댈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의 전쟁·평화 기념관 관계자가 하나같이 참여하여, 그 현상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장래의 방향성에 유효한 기초가 될 것이다.

종래의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생각을 버리고, 과거의 역사를 찾아,

거기서부터 현재에 공헌할 유산을 골라내고, 그리고 평화의 21세기를 확고히 하는 첫걸음을 여기 한국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각주

- (1) 「로체스터·타임즈·유니온」紙、1945年6月25日 데이빗 맥킨지 기자의 기사에 의거함.
- (2) 한슨·W·볼드윈／木村忠雄·杉浦利英訳 『승리와 패배』, 424페이지, 朝日新聞社, 1991년
- (3) 유진·B·슬레지/外間正四郎訳 『진흙과 화염의 오키나와戰』, 298페이지, 琉球新報社, 1991년
- (4) 嶋津与志 『오키나와戰을 생각한다』, 87페이지, ひるぎ社, 1997년
- (5) 상동, 92페이지
- (6) 오키나와戰 평화 기념 자료관 편 『오키나와戰 평화 기념 자료과 종합안내』, 11페이지, 2001년
- (7) 평화 기념 자료관 이전개축 기본계획 검토위원회 『평화 기념 자료관 이전개축 기본계획 보고서』, 1페이지, 1996년 5월
- (8) 石原昌家·大城将保·保坂廣志·松永勝利 『쟁점·오키나와戰의 기억』, 315-316페이지, 2002년, 社会評論社
- (9) 福地曠昭 『오키나와戰의 여인들』, 49페이지, 1992년, 海風社
- (10) 숫자의 출전은, 동상, 281-284페이지 참조
- (11) 金元栄／岩崎春美訳 『조선인 군부의 오키나와 일기』에 실린 岩崎春美의 해설에서, 184페이지, 1992년, 三一書房
- (12) 『城辺町史』(제2권 전쟁 체험기)여성, 당시 16세, 456페이지, 1998년
- (13) 평화 기념 자료관 이전개축 기본계획 검토위원회 『화 기념 자료관 이전개축 기본계획 보고서』, 15페이지, 1996년 5월
- (14) 자세히는, 保坂廣志 「오키나와戰의 마음의 상처와 그 회복」 『琉球大学

法文学部 人間科学科 紀要 人間科学』(제 9 호), 9-81페이지, 2008년 3월을
참조 바람